

서평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느덧 30년이다. 새내기 교사로 돈암동에 있는 한 사립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 맑은 눈동자를 가진 40명의 어린 아수들 사이에 던져지더라도 한 것처럼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음... 애들이 나는...” 그 후로 40분 동안 나는 혼자였다. 휴식시간이 되자, 복도로 뛰어나가 주임선생님 반을 들여다 보려 했지만, 교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럼, 같이 발령받은 옆 반 김선생은?” 마찬가지로 닫혀 있어서, 나는 외로이 5학년 국화반 담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하루가 참 길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교실에서 누리는 영향력으로 인한 달콤한 권력과 재미에 익숙해져 갔다. 가끔씩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오가기

는 하지만, 교실로 들어오시지는 않았다. 몇 가지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교사 회의도 자주 있었지만 누구도 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성주(城主)였다. 선교회 활동 등 교회 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나름 의식 있는 젊은 기독교인이 되고자 했던 내 열심은, 나의 城, 5학년 국화반과는 별개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더 넓은 세상을 훑힐 날아보고 싶었던 나는 5년 뒤 과감히 나의 성(城)을 포기했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고 수원에 기독교 학교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미션 스쿨인가?” 아니란다. 호기심 반, 어쩔 수 없는 이끌림 반으로 나는 그곳의 교사가 되었고, 이번에는 1학년 솔반이라는 성(城)을 하사받은 듯했다. 그때였다. 지금은 교인이 되신 이도선 상임이사님이 건내주신 책이 내게 물었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박영주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다.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중앙기독교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현장 경험을 하였으며, Philadelphia Biblical University에서 MS in Education,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교 리더십으로 Ed.D를 취득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태국 및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교육 실천을 통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교실에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수업을 하는 것도 나고, 아이들을 예뻐하며 돌보는 것도 나고, 때로는 무섭게 훈육하며, 맘고생하는 것도 나인데요? 교실은 내 영역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저는 새내기 교사가 아니랍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도 좋은 기독교사이고 싶었던 나는 동료들과의 독서 토론을 계속했고, 어느덧 마음의 빗장을 내려놓게 되었다.

기독교적 정신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북미 세속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분투해온 반 부르멜른 교수의 고민과 열심, 그리고 비전이 막 걸음마를 시작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을 통해, 교실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당시, 일반 학교 교육 현장에는 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고, 좋은 연구서나 자료가 거의 없었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는 나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에게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사 이상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교실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2014년에 새롭게 출시된 전면 개정판은 특별히 4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가하여 공교육 현

장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독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변화하는 다원주의 세속 교육 현장에서 정직하면서도 확고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공립학교 기독교사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 책의 모든 부분이 진주같이 귀하지만,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며 성장한 교사였고, 이제는 다음 세대의 기독교사들을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대학원의 교수로서 나는 특별히 두 주제에 주목하고 싶다.



하나는, 4장 ‘의미 있는 학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다. 반 브루멜른 교수는 기독교적 인간관을 의미 있는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존 교육학자들의 네 가지 인간관 비유를 비판적으로 소개한다. 첫째 비유는 아이들을 지식을 기록하는 백지나, 사실이나 개념을 저장하는 돼지 저금통으로 보는 주입식 교육의 관점이다. 둘째는, 인간을 훈련 대상으로 보는 행동주의자들의 관점이다. 셋째는 아이들을 천천히 펼쳐지는 자라는 식물(Unfolding plant)로 비유하는 인지론자들의 관점이며, 마지막으로 듀이(Dewey)나 프레이리(Freire) 등은 학생을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고 생각하며, 학습을 사회 개선의 수단으로 보았다. 브루멜른 교수는 위 비유들에도 우리 기독교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는 풍성한 성경적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

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독특하게 창조되었기에, 저마다 독특한 자유와 능력을 사용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기독교사들은 학생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여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인간관의 다양한 비유들이 내포하고 있는 장점을 받아들이되, 궁극적으로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응답하는 제자도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알맞은 과제물로 의미 있는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 브루멜른 교수는 교사가 필요한 모든 학습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오직 성령이 교사와 학생들을 붙들고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만 학생들이 응답하는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한다.

또 하나는 8장, ‘서로 돕는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이다.

학교는 아이들을 문화화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상적인 기독교 학교는 자신의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개인들의 집단 이상으로, 공통의 이상과 목적으로 엮인 학습을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반 브루멜른 교수에 의하면 학교가 서로 돕는 학습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주로 학교 문화(학교의 신념, 가치관, 태도, 분위기, 전통, 기념 행사 등)에 달려있으며, 학교 문화는 학생과 교사의 태도 및 성취에 영향을 준다. 사실 완벽한 학교 공동체는 없다. 죄의 힘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며 인자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학교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원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신앙적 통찰을 공유하고 학습의 의미를 성찰하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의 훈련과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우호적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가르침과 배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수업을 돕고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 브루멜른 교수는 역설한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굳게 결합된 몸이며, 각 교사는 그 몸의 한 지체로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더 낮지 않다. 또한 학교가 기독교적 학습 공동체가 되려면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는 교육의 제1차 책임자이다(신 6:6-9, 엡 6:4). 학생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 다른 사람, 자기 자신, 권위,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경험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아이들이 속한 사회는 세속적이고 이익, 권력 지향적이어서,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이 자주 무시되거나 심지어 조롱당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인 부모와 교사가 공통의 성경적 가치관에 헌신되어 있고, 서로 돕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안정된 학습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또 개별 교실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라는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도전을 받은 지 어언 20여년이 지났다. 지난 2012년 1월 반 브루멜른 교수님과 식사하며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것이 그분 생전의 마지막 만남일 줄은 몰랐다. 헌신된 교육가이자 존경 받는 스승, 반 브루멜른 교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이 평생에 걸쳐 달려오신 기독교사의 바톤이 이제는 나와 한국의 많은 동료 기독교사들의 손에 쥐어졌다.

다짐해본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 78:3-4) ㉠